

I. 서론

1. 연구 목적

전망을 실시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미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에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다. 단기 전망은 속성상 전자에 가까운 반면, 장기 전망은 전자와 후자를 포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장기전망은 보험회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에 어떠한 잠재 성장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하는 기대를 어느 정도 내포하게 된다.

이 연구는 향후 2015년까지 보험 환경 및 산업을 전망하고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중장기 전략 및 비전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발전 및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주요 관련지표의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이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국내 보험산업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보험수요를 전망한 연구는 보험개발원(2000)의 연구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에 대해 보험료를 2010년까지 전망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상기의 작업을 5년만에 수정·보완하면서도 전망시점도 2015년까지 확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내 보험시장의 중장기적 추이를 예측하기에 앞서 OECD에 가입한 주요 회원국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별 보험시장의 특징적 현상을 비교 분석한

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작업은 선진 보험시장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어떠한 발전단계에 있는지,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환경변수들은 어떠한 변화의 단계에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국내 보험시장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는 데 다양하고 폭 넓은 시야를 제공하도록 시도하였다.

2.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중·장기적인 보험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인구,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보험시장 환경 변수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목별 보험시장의 규모를 전망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험시장 변수들과 보험수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보험 선진국이 대부분 포함된 OECD 주요 회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험수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보험시장과 비교한 우리 보험시장의 성격을 특징짓고, 향후 우리 보험시장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후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시장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들 보험 선진국들의 과거 10~15년 사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보험시장의 향후 10년 흐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독자들은 국내 시장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Ⅱ장은 각국의 보험환경 변수 및 보험시장 주요 지표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특징을 비교하는 부분과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OECD 주요국의 종목별 보험수요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수들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경제성장, 의료비, 자동차등록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추이를 추정하거나 가정함으로써 주요 환경 변수를 전망하였다. 이러한 환경변수들에 대한 조망은 OECD 주요국의 그것과 비교를 통하여 천착함으로써 이후 국내 보험시장의 중장기 주요지표를 전망하는 데 하나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종목별로 우리나라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주요 환경변수에 대한 전망치와 결합하여 보험시장의 주요지표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2015년까지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국내 시장 전망에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변수의 경우 단일 시계열적 특성이나 독립변수들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제외된 경우도 있다. 또한 보험상품의 특징상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보험소비 자체가 크게 변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계량모형뿐만 아니라 토론과정을 거쳐 연구자들의 견해를 접목하여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Ⅳ장은 전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책적 측면 또는 기업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어떠한 과제가 요구되는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끝을 맺는다.

3. 관련 선행연구

이 연구와 가장 유사한 성격의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는 보험개발원(2000)의 보고서는 향후 보험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계량 분석을 통해 종목별 보험료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과 향후 보험시장 트렌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소개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계량 분석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설명변수의 선정 및 추정 계수의 유용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환경요인들의 변화추이와 보험수요를 연관지어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중장기전망에 앞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환경변수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보험수요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국제보험시장을 대상으로 보험수요를 분석한 연구를 탐색해보았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밝혀진 요인과 보험수요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보험수요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rowne and Kim(1993)의 연구는 48개 국가의 1987년 생명보험 자료에 대해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보험수요를 결정짓는 변수로 사전에 선정된 것은 소득수준(income), 사회보장수준(social security), 기대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 rate), 교육수준(education level), 기대여명(average life expectancy) 등이었으며, 이중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Beck and Webb(2002)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다수의 나라

들을 한꺼번에 분석했기 때문에 통계적 설명력이 선진국들 사이에 혹은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선진국 집단과 개발도상국 집단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서 Beck and Webb(2002)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68개 국가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소비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실증연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보험수요의 대응변수로서 계약액 침투도와 보험료 침투도 등을 적용하였으며, 분석모형에 있어서도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analysis)과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모두 적용하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리하여 테스트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1인당GDP, 노년부양비(old dependency ratio), 금융산업의 발전수준 등의 변수가 보험수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손해보험 수요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세계 각국에 대한 일정한 수요 구조를 파악하기 보다는 보다 제한된 시장에 미시적인 변수 사이의 관계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sho et al.(2004)은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가별 법률환경, 경제성장수준(economic development), 리스크회피수준(risk aversion), 보험가격(the price of insurance) 및 손실발생가능성(the probability of loss) 등의 변수를 적용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1984~1998년 동안 44개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널분석 및 횡단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손실발생가능성 및 소득이 손해보험 수요에 양(+)의 관계를 나타내며, 보험가격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밖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 국가내의 서로 다른 지역 또는 집단간 나타나는 차이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개발원(2000)의 중장기전망에 관한 보고서가 있었으며, 삼성금융연구소(2004) 등의 소수 연구가 있으

나 많은 경우 생명보험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단기모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계량 모형을 찾기는 어려웠다.